

교환학생 활동 보고서 (2017-2 학기)

컴퓨터공학부 김도윤

수학 기관: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 (ETH Zürich, ETHZ)

1. 지원, 출국 전

서울대학교에서 ETH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면 ETH 사이트에서 다시 온라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원 절차가 pipeline 형태로 잘 나와 있고 이전 단계를 완성해야 차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서 순서대로만 따라하면 지원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ETH 측에서도 교환학생으로 합격하면 합격 확인서와 비자나 기숙사 신청과 관련해서 메일을 보내 주시는데 메일을 자주 확인하고 기간 내에만 처리하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겪은 한 가지 문제점은 WOKO 에 첫 달 기숙사비와 보증금을 낼 때 사용하는 Global Pay 에서 오류가 났던 것인데, housing office 에 문의 메일을 드렸더니 Global Pay 사용 없이 직접 송금할 수 있도록 계좌 정보를 보내주셨습니다.

2. 학업

A. Intensive German Course

본 학기가 시작하기 전 2 주간 ETH-UZH language center 에서 운영하는 단기 집중 독일어 강좌를 수강하였습니다. 독일어 알파벳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국해서 가장 쉬운 반인 A1.1 에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2 주간 매일 5 시간씩 수업을 듣고 세번의 시험을 친 후 pass 를 하면 2ECTS 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 친구들도 사귀어 수 있었고 교환학생 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만한 주제들 위주로 (자기소개하기, 장을 볼 때 유용한 단어 등) 단기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독일어 뿐 아니라 스위스 생활에 대한 팁도 주셨고, 취리히 시내를 구경하는 활동 등도 포함되어 있어서 개강 전 시간이 나신다면 수강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B. 수업

Study plan 을 작성할 때 최소 20 ECTS 를 신청해야 하고 그 중 2/3 이상은 본인이 소속된 학부의 수업이어야 합니다. 이 study plan 을 소속 학부의 exchange coordinator 로부터 승인 받아야 합니다. 저는 컴퓨터공학부이지만 제가 교환학생을 갔을 때 서울대학교와 ETH 컴퓨터공학부 사이에는 교환 협약이 없어서 전기정보공학부에 해당하는 D-ITET 에 지원했는데, 제 사정을 말씀드리니 coordinator 분이 저희 과 외부에서 1/3 이상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25 ECTS 이상을 신청하면 exchange coordinator 가 학점 수가 너무 많다며 메일을 보내시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소속 학부의

coordinator 와 상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ETH 에서는 중간고사가 없는 경우가 많고, exercise 나 과제도 평가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수업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은 비교적 여유롭게 보낼 수 있었지만, 수업 내용에 뒤처지거나 하지 않도록 스스로 시간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학기 동안의 성취도를 한 번의 기말고사로 평가하게 되는 점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C. 시험기간

ETH 에서는 시험기간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시기에 따라 종강 직후 바로 시험을 치는 End-of-Semester Exam 과 크리스마스 방학 이후, 다음학기 개강 직전까지 시험을 치는 Session Exam 이 있습니다. 제가 수강한 과목들은 모두 Session Exam 이었고, 한국에서의 다음 학기가 시험일의 일주일 이내에 시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험을 당겨서 치는 것이 불가능해서 2 월 중순까지 시험공부를 했습니다. 자세한 시험 일정은 학기 말이 다 되어야 나오지만, 두 기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미리 강의계획서에 나와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은 종류에 따라 Written Exam 과 Oral Exam 이 있는데, Oral 은 교수님(들) 과 직접 대면해서 문제를 풀고 설명을 하는 방식입니다. 시험의 특성상 잘 맞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영어로 말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분이라면 교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힌트를 얻거나 틀린 부분을 고쳐가면서 시험을 칠 수 있어서 필기시험보다 쉽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보통 시험시간이 15~30 분정도이다보니 아주 국소적인 주제에 대해서만 깊게 다루는 교수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다른 분야들을 잘 알고 있더라도 문제에 나오는 한 부분만 모른다면 fail 을 하게 될 수도 있어서 윤도 어느정도 따르는 시험 유형인 것 같습니다.

3. 학업 외

A. ASVZ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학교 내 여러 센터에서 다양한 종목을 가르쳐 주시는데, 저는 필라테스나 Kondi 수업을 자주 들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혼자서 헬스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SVZ 앱을 다운받으면 그날 어떤 시간에 어떤 수업이 있는지, 강사는 어떤 분인지, 난이도는 어떤지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수업 언어는 거의 항상 독일어였지만 동작을 따라할 때에는 숫자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했고 같은 수업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자주 사용되는 독일어 단어들도 익히게 되었습니다. 간혹 입구에서 ETH 학생증(Legi)을 검사할 때도 있고, 라커를 사용할 때 자물쇠는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또 기구 개수 등의 제약 때문에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강좌들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B. 기숙사

우리 학교와는 다르게, 캠퍼스에 기숙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WOKO 라는 회사가 취리히 곳곳에 기숙사들을 가지고 있고 그중 하나에 배정되는 방식입니다. WOKO 홈페이지에서 기숙사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고, 지원할 때 요구사항을 적거나 특정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다고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제공되는 물품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가 배정받은 곳은 internet access 가 있다고 되어있었는데, 막상 가보니 유선인터넷만 있어서 취리히에서 비싸게 공유기를 구매해야 했습니다.

저는 Meierwiesenstrasse 62 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0 층부터 4 층까지 개인실이 170 개정도 있고 부엌과 로비, 세탁실은 0 층에 있는 것을 함께 사용하는 형태였습니다. 각 방에는 작은 싱크대가 있고 층마다 화장실/샤워실은 공유합니다. 기숙사 바로 앞에 트램 정류장이 있고 5 분 거리에 기차역이 있어서 매우 편리 했고, 플랫에서보다 여러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같은 기숙사에 사는 친구와 주 2 회정도 로비에서 만나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독일어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주 파티가 열려서 새벽까지 시끄럽거나 공용 공간이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기숙사에도 있는 문제지만 많은 학생들이 함께 살다 보니 도난 사고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을학기 교환학생의 WOKO 계약은 1 월까지인데, 시험이 2 월 중순까지 있어서 3 주정도 지낼 다른 기숙사를 직접 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렌트 기간 종료 후 시험을 치게 되신다면 학교측에서 보내는 메일의 안내사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후 숙박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C. 교통권

다른 교환학생 분들과 비슷하게 Halbtax 와 Gleis 7 을 구입해서 여행을 다니거나 독일 Waldshut 에 장보러 갈 때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또 매달 Zone 110 용 정기권을 구입하고, 필요에 따라 extension 티켓을 추가했습니다.

D. 계좌

기숙사비를 낼 때 스위스 계좌가 없다면 직접 현금과 고지서를 들고 우체국에 가서 지불을 해야 해서 UBS 에서 학생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가입시 여권, 거주증, 학생증이 필요했습니다. 가입을 하거나 친구를 추천하면 현금과 비슷하게 사용 가능한 Keyclub Points 를 줍니다.

E. 보험

학교에서 학기 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험에 대해 설명해주는 시간이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Swisscare 에서 제공되는 한달에 65 프랑짜리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F. 유심

Lycamobile 에서 데이터 번들만 매달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저렴한 것 같습니다.

4. 마치며

주변에 교환학생을 다녀온 사람도 많지 않았고 지원도 갑작스럽게 결정하게 되어 가기 전에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다녀오고 나니 왜 진작에 가지 않았나 싶을 만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친구들을 사귀면서 문화를 공유하고, 관심있었던 주제에 대해 영어로 강의를 듣는 것 모두 앞으로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런 기회를 주시고 지원해주신 공과대학 관계자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